

※ 19세기의 시작, 낭만주의의 유입과 러시아 민족의식의 성장

I. 19세기 이전은, ... ?? II. 서구 <낭만주의>의 성장, 러시아로의 유입 III. 습작을 마친 근대적 러시아 문학의 첫 단계, 낭만주의 IV. 러시아 문학의 '사회적' 성격의 시발점이자 민족의식 배아를 위한 토양으로서의 낭만주의

I. 19세기 이전은, ... ??

= 1698년 서구시찰에서 돌아온 표트르 대제의 강력한 근대화(=>서구화)로부터 1796년 예카테리나 여제의 사망까지로 볼 수 있는 18세기 러시아는 서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른바 근대화(=서구화)와 <학습>의 시기였다.

-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는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절대주의(=>專制政治)는 17세기 이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좌절될 때까지 유럽의 질서였다.

- 이러한 절대주의 황정은 무엇보다 철저한 피라미드형 세습신분제와 고착형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질서와 안정, 궁정과 귀족 중심의 수직위계 구조와 신분제/독점적 사회를 지향했다.

- 또한, 중세와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을 지나오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성중심, 계몽주의, 그리고 '보편성'을 지향했다.

- 개인보다는 전체(국가), 개별성 보편성을 우선시하는 이런 절대주의와 이성중심의 계몽주의, 보편주의를 토대로 18세기 유럽 사회는 구축되었다.

= 한편, 문학에서는 고전고대 그리스 로마의 비극과 서사시를 계승하자는 신고전주의 흐름이 당시 유럽을 장악하며, 드라마 장르가 주류를 이루었다. 고전주의적 드라마와 함께 절대권력의 황제를 칭송하고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이른바 송시(詠詩; Ode, Ода)가 러시아에선 또 강한 수요를 누리고 있었다.

- 이런 드라마와 시 장르는 무엇보다도 장르 본연의 규범에 충실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이런 면이 더욱 문학'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말 그대로 <습작>의 시기였다.

= 결국, 17세기까지의 중세의 긴 여정을 지나온 러시아는 18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표트르 대제의 근대화(=서구화)의 조치로 서구의 문물을 파격적으로 수용하는 갖가지 개혁적 조치와 함께, 문학 분야에서도 근대적 문학, 즉 서구의 문학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 그렇게 수용하게 된 서구 문학의 주된 흐름이 18세기 말엽, 독일을 중심으로 이른바, "낭만주의(Romanticism)"라는 사조였다.

II. 서구 <낭만주의>의 성장과 이의 러시아로의 유입

= 서유럽에선 이미 18세기 중엽, 또는 심지어 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절대주의와 이성중심의 계몽주의, 그리고 신고전주의의 엄격함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 이미 17세기부터 시작해 데카르트의 연역적 사고의 힘[방법서설; 1637]을 깨친 (서)유럽인들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발견(1687)에 이르러 이성과 수학적 설명을 귀납적 방법론으로도 확고히 믿게 되었다.

- 동시에, 여전히 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을, 절대주의 황정이라는 인간의 권력으로 이 문제를 잊으려 했으나 서서히 좌절하기 시작했다.

- 결국, 자연에게서 위로받으며 느끼는 존재로서,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힘든) 인간의 정서라는 부분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다.

= 낭만주의는 이처럼 <자연>과 <정서>라는 두 요소를 바탕으로, 18세기의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 폐기와 국가 중심의 전체에 귀속되기를 거부하는 개인으로서의 감성적 독자성에 기반해 발전되기 시작했다.

- 장 자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사회계약론; 1762]”는 외침은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볼테르나 디드로 등이 중심이 된 이른바, 프랑스 백과전서파가 중심이 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의 몰리에르, 라신 등의 신고전주의 비극 드라마에서, 서서히 문학의 흐름은 '느끼는' 인간의 감성과 개성을 우위에 두는 독일의 문필가들에게도 옮겨가게 된다.

= 1770년대 독일에서 나타난 소위 “질풍과 노도(Sturm und Drang)” 운동은 문학에 있어 낭만주의의 의식적인 표출이었다.

- 이 운동을 이끈 젊은 독일 작가들은 자연에 의해 영감을 받아, 프랑스의 의식을 타파하고 고전주의의 적재물을 몰아내고자 했다. 이들은 거개가 20대의 젊은 작가로서,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천재는 우리를 구속하는 어떠한 제재나 속박을 넘어선다 2) 인간의 정서(감정 또는 정열)은 사변보다 우위에 있다 3) 인간의 마음에 깃든 정서를 바탕으로 순박한 사람의 시를 써야 한다 4) 인간의 영혼은 자연에 깃든 혼과 같다 5) 문학은 철학적 진리, 즉 모든 존재의 밑에 깔려있는 절대적 실재를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 이런 낭만주의적 움직임을 가장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 이가 프리드리히 셸링[“인간적 자유의 본질”; 1802]과 요한 볼프강 괴테(1749~1832, 『파우스트(1772~1832)』)이다.

= 러시아로의 이런 낭만주의적 사조의 유입에 결과적으로 앞선 이들은 18세기 절대주의 시대에 교육받은 귀족을 중심으로 딜레탄트의 입장에서 정서적이며 예술적인 글을 쓰던 이들로 부터 비롯했다.

- 초기, 넘쳐나는 감상성(感傷性)을 무기로 한 니콜라이 카람진의 『가련한 리자』로부터 시작된 러시아 낭만주의의 전단계는 서서히, 서구적 영향을 여전히(!) 받아들이며 성숙한 낭만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준비하게 된다.

- 주코프스키(В.А. Жуковский; 1783~1852), 바투쉬코프(К.Н. Батюшков; 1787~1855), 델비그(А.А. Дельвиг; 1798~1831), 바젠프스키(П.А. Вяземский; 1792~1878) 등 초기 낭만주의자 그룹을 거치며 대략 1810년대 후반부터 보다 성숙한 낭만주의의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III. 습작을 마친 근대적 러시아 문학의 첫 단계, 낭만주의

0. 여러분들, 낭만이 무엇인가요...?

=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

- 절대주의 이성중심의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 이성, 질서, 조화, 전체 대신 감정, 자아, 고독, 개인 등이 중시
- 밤, 사랑, 자연과의 교감, 죽음, 허무, 고독, 소외, 자아승배, 우정, 민족적 메시아주의 등의 정서가 대두
- 낭만주의라는 문학사조에선 서정시(抒情詩) 장르가 부각

= 낭만주의에서 민족주의로 진화

- 1) 전체를 중시하며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던 상황, 그리고 2) 유럽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타자’의 규칙을 습득할 것을 강조하던 몰개체적 상황, 3) 러시아인의 개성보다 계몽된 문명인으로서의 진입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다름아닌 감정을 지닌 창조적 개인에 대한 강조는 그 개인의 집합체로서 결국 개별 ‘민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짐 (cf) 독일의 사학자이자 슬라브 연구가 슐뢰처(August L. von Schlozer; 1735-1809)의 영향도 크다.
- 그 결과 개별 민족만의 독특한 자국어, 자국풍습과 민속, 자국의 역사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 (cf) 1800년, 중세 러시아 문학의 백미라고 칭송되는 『이고리 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출간, 미하일 카람진(Н.М. Карамзин; 1781~1826)의 『러시아 국가의 역사(Ист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го; 1816~1829)』 간행.
- 보편적인 모두의 것(the universal)이 아닌 ‘무엇인가 우리(만의) 것’(что-то своё)에 대한 관심 증폭
-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귀족과 농민계층이 단합해 이겨내면서 민족 ‘내부’의 유대도 매우 커졌다.
- 1810년대 진행된 보수 복고반동적 성향의 러시아어 애호가 클럽과 진정한 낭만적, 민족적 성향의 『아르자마스(Арзамас)』간의 대결과 후자의 승리는 이후 러시아 문학과 문단에서의 낭만주의의 우세와 확고한 정초화를 가능케 했다.

= 삶 자체이자 사회적 사상으로서의 낭만주의, 민족주의

- 낭만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 멀리 다른 어떤 곳으로 외로이 향하는 자신의 마음’임
- ‘움직임’ 그 자체, 율메이지 않는 몸과 정신의 자유, 자유, 자유 ... (cf) “여행”의 테마)
- 현실에서 얻어지기 힘든 자유와 동경은 결국 이상향, 즉 ‘부재하는 장소’(utopia)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진화
- 그런 이상을 19세기 초, 이른바 러시아의 일군의 귀족들은 ‘모든 형제가 평등한 사회’로 설정했으며, 전형적 예는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막아낸 전쟁에 참여해 러시아를 지켜내고 유럽을 목도하고 돌아온 실존인물인 세르게이 볼콘스키(С.П. Волконский; 1788~1865) 공작으로 생각 가능.
- 한편,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문예적 흐름의 수용과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당시 사회 고위층 일부의 의 적극적인 참여는 알렉산드르 I세(1801-1825) 치세 초반의 개혁 지향의 자유주의적 분위기와 조응된 것이라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 또한 여기에서처럼, 유럽에서의 낭만주의가 이른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1848년 유럽 혁명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왕정 타도의 ‘혁명의 글쓰기’라는 사회적 배경 또한 러시아 낭만주의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 낭만주의는 1825년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후 새로 즉위한 니콜라이 I세의 반동, 탄압정치가 심해지며 더욱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억압에 대한 저항의 구심점이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 삶과 예술의 관계에서, 낭만주의는 예술이 삶을 지배

IV. 러시아 문학의 사회적 성격의 시발점이자 민족의식 배아를 위한 토양으로서의 낭만주의

= 낭만주의부터 러시아 문학은 일종의 사회적 연단의 호소문, 비평, 선언서가 되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필요조건인 것이 러시아 문학이라고 해서 모두가 언제나 열띤 사회성에 침잠해 있었던 것 만은 결코 아니다!

- “영국에는 과학이, 프랑스에는 미술이, 독일에는 철학이, 이탈리아에는 음악이, 그리고 러시아에는 _____ 이 있다.”

= 또한, 낭만주의는 감성과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 ‘나’에 대한 집중으로 뚜렷한 개성적 자질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면은 결국 다른 이들과는 다른 ‘우리’ 러시아인이라는 민족적 자각,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저류(底流)로 역할하게 된다.

= 낭만주의의 “시인Поэт”이란 존재의 러시아 사회에서의 특별한 위치!!!